

# 리영희의 ‘언론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최영목\*\*

리영희 선생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식인 중의 한사람이다. 리 선생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상의 은사’ 혹은 ‘의식화의 원흉’이라는 극단적 평가를 받았다. 리영희 철학과 언론사상의 핵심은 휴머니즘과 자유,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리영희 선생은 평생 언론사 기자, 언론학 교수로 살았지만 리 선생의 언론활동, 언론실천, 언론사상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인, 언론학자로서 리영희 선생의 언론 사상과 실천 활동을 정리하고자 했다. 리 선생의 ‘언론인 50년’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 이론과 실천의 통일로서의 글쓰기, 언론과 언론인 비판이었다.

주제어: 사상의 은사, 언론사상, 실천으로서의 글쓰기, 언론비판

## 1. 머리말

리영희 선생은 지난 50여 년 간 한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지식인 중의 한사람이다. 정론직 필의 글쓰기로 한평생 살다가 지난 2010년 12월 작고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묘지에 묻혔다.

리선생은 1929년 평북 삭주에서 태어나 경성에 유학하여 중학교를 다녔다. 6.25 전쟁 당시 육군 통역장교를 지냈다. 연합통신사와 조선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일하다가 1972년 한양대 신문학과에 부임하여 1995년 정년퇴임했다. 언론인으로서, 언론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리영희 교수는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80년 신군부가 리선생을 투옥했을 때, 프랑스 『르몽드』는 리선생을 ‘사상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리영희 선생의 중국과 베트남, 미국과 북한, 북핵과 파병 문제 등에 대한 글과 발언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리영희 선생은 50여년을 언론인이자 언론학자로 살았고 그의 실천적 삶이 한국 언론과 한국 언론학계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다. 리선생이 언론인이고 글쓰기를 업으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론관이나 언론사상, 언론인으로서의 업적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선생의 언론자유이론과 권력이 된 주류 언론에 대한 실증적 비판, 진실탐구와 실천으로서의 저널리즘 정신은 한국 언론과 언론학 연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의제다.

리선생은 비평집, 자전예세이, 회고록 등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자신의 언론관이나 언론사상을 체계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다. “혁명가는 지나온 혁명이 그 인간의 전기이다. 마찬가지로 사상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글이 자신을 말하는 전부다”(리영희, 1988, 서문)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리선생은 역사적 체험과 성찰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글로 쏟아냈을 뿐이다. 리선생은 자신을 평생 언론인이라 인정하기는 했지만 언론학자라는 정체성은 거의 없었다. 리선생의

\* 이 연구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KRF 과제번호 2007-361-AM0005)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elcondor@skhu.ac.kr)

언론사상이나 언론관 등은 리선생의 글과 다른 사람과의 대담 등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리영희의 언론사상’을 정리하기 위해 리선생의 모든 저서,<sup>1)</sup> 다른 사람과의 인터뷰나 대담, 신문기사, 리 선생에게서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 리영희 평전 류의 여러 저술 등을 검토하였다. 리 선생이 직접 쓴 모든 글과 발언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지만 리선생의 언론사상을 유형화하기는 쉽지 않았다. 리 선생에 있어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기 어렵듯이 언론사상과 언론행위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의 리영희 논의와 연구 현황을 정리했고, 3장에서는 리 선생 삶의 궤적을 주요한 계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사상의 자유, 실천 저널리즘, 언론비판을 리영희 언론사상의 키워드로 보고 그 핵심 내용과 이후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정리했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의의, 한계를 정리했다.

## 2. 리영희 ‘논의’ 현황

### 1) 리영희는 누구인가

리영희<sup>2)</sup>선생은 1929년 평북 운산군 대관에서 출생했다.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유학하여 경성공립공업학교를 다녔다. 1950년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안동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 중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통역장교로 자원입대 하여 7년간 복무하였다. 제대 후 1957년부터 1964년까지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조선일보와 합동통신 외신부장을 지냈다. 1972년 1학기부터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 겸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1976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해직된 후 1980년 3월 복직했으나, 그 해 여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다시 해직되었다가 1984년에 복직했다. 군사정권 시기 구속과 해직이 반복되었다. 1987년 이후 미국 버클리대, 일본 동경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에 각각 초빙되어 ‘동아시아 평화와 갈등’ 등에 대해 강의했다.

- 
- 1) 리선생은 평생 『전환시대의 논리』를 비롯하여 모두 18권의 책을 펴냈다(공저 기고 등 제외). 이중 편역(저서 4권(『8억인과의 대화』, 『중국백서』, 『10억인의 나라』, 『베트남전쟁』)과 기존 책의 글을 다시 모은 선집 2권(『인간만사 새옹지마』, 『동굴 속의 독백』)을 제외한 12권이 순수한 저서다. 이 논문의 모든 논의와 인용은 다음의 원저서 내용을 기본으로 했다. 『전환시대의 논리』(1974, 이하 『전논』), 『우상과 이성』(1977, 이하 『우상』), 『분단을 넘어서』(1984, 이하 『분단』),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1984, 이하 『한반도』), 『역설의 변증』(1987, 『역설』), 『역정-나의 청년시대』(1988, 이하 『역정』), 『自由人, 자유인』(1990, 이하 『자유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1994, 이하 『좌우』), 『스핑크스의 코』(1998, 이하 『코』), 『반세기의 신화』(1999, 이하 『신화』),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2005, 이하 『대화』), 『21세기 아침의 사색』(2005, 이하 『사색』).
  - 2) 한자로는 李泳禧다. 리선생은 평안도에서李의 발음이 ‘이’가 아니라 ‘리’기 때문에 ‘이영희’라고 부르던 자신의 이름 같지 않다가 ‘리영희’를 고집했다. 1988년 이전까지 책이나 기고문에서 필자명을 한문 李泳禧로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한글전용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고정기고 할 때도 ‘리영희’를 고집했지만 누군가가 “복괴발음을 쓰면 오해받는다”고 조언하여 ‘이영희 칼럼’이 되었다. 리선생은 이승만의 예를 들며 “광적인 반공주의가 성의 발음까지 바꾸어 놓았다”고 탄식하기도 했다(『李泳禧선생회갑기념문집』, 24쪽). 이후에도 저서 등의 필자명은 李泳禧를 고수하다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인 1998년 나온 『스핑크스의 코』부터 저자명을 한글 ‘리영희’로 표기했다. 필자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영희’라는 이름이 흔한데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여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 ‘리영희’를 고집한 면도 있다.

평생 ‘기자’였던 리선생은 주로 기사와 시사논문, 저술 등 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소신을 드러냈다. 1974년 『轉換時代 論理: 아시아·中國·韓國』를 낸 후 『偶像과 理性』(1977) 『8億人과의 對話』(1977), 『中國白書』(1982), 『分斷을 넘어서』(1984), 『10億人의 나라』(1984), 『80年代 國際情勢와 韓半島』(1984), 『베트남 戰爭』(1985), 『逆說의 辨證』(1987), 『歷程-나의 청년시대』(1988), 『自由人, 자유인』(1990),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1994), 『스핑크스의 코』(1998), 『반세기의 신화』(1999)가 나왔다.<sup>3)</sup> 저서의 주요 내용은 중국과 베트남 문제, 북한과 한반도 문제, 시사평론, 에세이 등이었다.

리선생은 감옥살이 후유증 등으로 2000년 11월 쓰러진다. 오른 손 등 몸의 일부가 마비되고 말도 잘 못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투병하면서도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열변을 토하기도 했고, 2005년에는 회고록 『대화』를 발간했고 2006년에는 모든 저서를 모아 리영희저작집(전 12권)을 펴냈다<sup>4)</sup>.

## 2) 리영희 관련 기준 ‘논의’

리교수가 현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 지성사적 궤적에 대해서는 이념적 동의나 반대에 무관하게 일정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리영희선생 타계 직전에 나온 그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상반된 평가 글로는 김동춘 등의 『리영희 프리즘』(2010), 윤평중(2006)의 『이성과 이상: 한국 현대사와 리영희』와 김광동(2009)의 『리영희-한국 친북좌파 사상의 대부』<sup>5)</sup> 등을 들 수 있다.

『리영희 프리즘』은 고병권, 이찬수, 이대근 등 젊은 언론인과 학자 10명이 리영희의 현재적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다. 홍세화가 서문에 쓰고 있듯이 리영희가 비판하고 저항하던 시대는 바뀌었지만, 권력과 위상은 더욱 노회해져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억압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돌아보고 영역별로 대안을 고민해 보기 위해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홍세화, 2012, 5쪽).

철학자 윤평중은 리선생이 또 하나의 위상이 되어 한국사회를 북한맹(北韓盲)과 시장맹(市場盲)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평중은 “냉전 반공주의의 음험한 본질과 은폐된 작동 기제를 폭로하는데 있어 한국 현대사에서 리영희처럼 투명한 이성을 알지 못한다”고 리선생의 ‘업적’을 인정했지만, “우상을 타격하는 그의 이성이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세운 또 다른 위상에 의해 빛이 바래 이성의 존재 이유를 훼손한다...자본주의의 이성을 부순 자리에 리영희가 세운 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위상”(윤 평중, 2006)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학자 김광동은 리영희 선생이 모택동주의로 출발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를 애절하게 동경하는 김일성주의자로 ‘변신’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서방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저주하면서 한국의 사상시장을 장악한 후 한국의 청년학생과 좌파들의 대부가 되었다(김광동, 2009)고

3) 이 밖에도 공저로 『핵전략의 위기적 구조』(1984), 『한국민족주의운동과 민중』(1987), 『반핵』(1988)가 있고 관련서적으로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1989)이 있다.

4) ‘리영희총서’ 기획 단계에서 리선생은 “이제 내 책의 역사적 임무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발간할 이유가 없다”며 극력 반대했다. 김언호, 윤창빈, 김주언, 김동민, 필자 등 후학과 후배언론인들이 총동원되어 선생님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리영희저작집 간행위원으로 강만길, 고은, 박석무, 백낙청, 이만열, 이상희, 이이화, 임재경, 최일남이 참여했고, 편집위원으로 김동춘, 김주언, 백영서, 서중석, 신학림, 이삼성, 임현영, 최영목이 참여했다. 번역·편역서는 저작권 관계로 제외됐다.

5) 김광동 외(2009), 『역지와 위선』, 북마크. 리선생과 관련한 김광동의 글을 권두에 실고 있다.

비판했다. 윤평중과 김광동은 비판은 리선생이 평생 주창해 온 인간중심주의와 자유주의, 부당한 권력의 작용에 대한 비판, 독단과 도그마에 대한 경계와 성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애한 세계관과 프레임(친미-반공-시장자본주의)을 가지고 리선생을 재단하고 있다.

리영희 사상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로는 1996년 나온 철학자 박병기의 논문 『휴머니즘으로서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들 수 있다. 박병기는 리선생 사상의 핵심을 휴머니즘으로 보고 그 휴머니즘 사상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어 인간 리영희 삶의 핵심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정리하고 있다. 박병기는 리선생의 삶을 성장기(1929~1957)-이론형성기(1957~1971)-이론적 실천기(1972~1990 절필선언)-완숙기(1990 이후)<sup>6)</sup>로 구분하고 리선생의 휴머니즘 사상이 단계적으로 진화해왔다고 보고 있다(박병기, 1996).

정치학자 조성환은 『이상과괴자의 도그마와 이상』이라는 논문에서 “리영희의 실존적 위상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찬탄, 매도, 무시의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그의 사도들은 리영희의 글을 새기고 말을 따르는 것이 관례였다. 이상과괴자의 칼날 같은 고발에 두려움을 느낀 권력은 그를 탄압하고 매도하였다. 그와 다른 처지에 있는 많은 제도권 지식인들은 애써 그를 외면하였다.”(조성환, 2007)고 적었다. 리선생에 대한 한국사회의 평가는 여전히 양분되어 있다. 리선생 작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은 두 신문의 리선생 부음기사 중 일부다.

(고인은)...수많은 저서를 통해 냉전사고에서 벗어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베트남전이나 중국공산당에 대한 우편향 시각의 교정을 주장했다...70~80년대 운동권 대학생과 진보세력 사이에 ‘사상의 은사’였다. 2000년 뇌졸중이 발병한 뒤 2005년 구술 자서전 『대화』를 펴낸 것을 끝으로 공식적 집필활동은 중단했으나 사회참여와 진보적 발언은 계속했다(『경향신문』, 2010년 12월 5일자).

고인은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활동하며 ‘386 세대의 정신적인 지주’로 꼽혔다. 탈냉전과 민족화합을 주장하는 그의 관점은 군부 독재시절 반공주의를 절대가치로 교육받았던 세대들에게 민족애를 강조한 새로운 통일관으로 부각됐다...사회 참여와 진보적 발언으로 여전히 좌파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도 불구하고 친북 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동아일보』, 2010년 12월 6일자).

두 기사 모두 리선생의 삶에 궤적을 전하고 있지만 주목하는 지점은 판이하다. 한 신문은 탈냉전 시대를 주도한 사상의 은사였음을 강조하고 다른 한 신문은 친북성향의 좌파지식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판이한 두 신문의 리선생 평가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리선생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미관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우편향 시각을 교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와 ‘좌파의 구심점’이 되어 ‘친북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리영희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리선생은 50여 년간 국내의 보수 신문과 ‘풍향계보다 빨리 변하는’ 기회주의 지식인의 행태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6) 김만수는 박병기 시기구분법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성장기가 무려 30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적 형성기와 실천기를 구분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본다. 요컨대 리선생 삶에 있어 이론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는 총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동구의 몰락이후를 완숙기로 분류하는 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것이다(김만수, 2003, 85~89쪽).

리선생은 생전에 자서전(『역정』)과 회고록(『대화』)을 남겼다. 이 두 권의 저서는 사실 모든 리영희 논의와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책들과 달리, 리선생 자신과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리선생 스스로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정』(1988)은 1929년 출생에서 1961년 합동통신사 외신부기자 시절 ‘박정희 의장’의 방미 동반 취재 특종<sup>7)</sup>과 그 여파까지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쫓겨난 1982년 무렵 유인호교수의 ‘별장’에서 작성하고 집필한 것이다. 1983년 초 2/3가량 집필이 되었을 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강의 건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바람에 중단된다. 식민지 환경 속에서 소년 리영희가 지식인(기자)이 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대화』는 『역정』의 후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리선생은 2003년 무렵 건강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글을 쓸 수는 없는 상태였다. 구술로 회고록을 쓰기로 하고, 대담자로 임현영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대화를 나누고 녹취자료를 수차례 교정하여 회고록을 완성한다.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대화』는 리선생의 혼이 담겨있는 최후의 저술이다. 리선생의 평생의 주요한 국면과 세계 인식, 내면의 풍경을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이 지식인-언론인으로서 리선생의 삶을 들여다 본 ‘인물평전’ 형식의 책도 세 권 발간되었다. 지난 2003년 김만수가 쓴 『리영희 살아있는 신화』(2003)가 나왔고 2004년에는 강준만의 『리영희,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2004)가 나왔으며 2010년 말 김삼웅이 쓴 『리영희 평전-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2010)가 나왔다.

사회학자 김만수는 『리영희 살아있는 신화』에서 리선생 삶과 사상을 그의 저술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사회학’ 입장에서 꼼꼼하게 정리했다. 『전환시대 논리』(1974)에서 『동굴 속의 독백』(1999)까지 리선생 저서에 실려 있는 모든 글들을 국제관계, 국가, 남북관계, 냉전과 반공, 민족과 통일, 언론과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한국의 역대정권, 종교와 죽음, 교육과 문화 범주로 나누어 영역별로 정리하고 평가했다.

언론학자 강준만은 『리영희,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2004)에서 리선생의 삶을 험난했던 한국 현대사와 연결하여 해석, 평가하고 있다. 강준만은 리선생이 식민지에서 해방, 분단, 전쟁, 혁명과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를 온 몸으로 체험하고 이를 기록한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본다. 리영희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보고 또 한국현대사 속에서 리영희를 자리매김 해 보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인 김삼웅은 리교수 작고 직전에 『리영희 평전』(2010)을 완성했다. 김만수와 강준만의 책이 주로 리선생의 저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김삼웅은 리선생의 글과 수차례의 방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한 ‘사사로운’ 정보를 섞어서 리영희의 ‘새옹지마 인생’을 정리했다. 세 권의 ‘평전’은 리선생의 삶을 나름대로의 틀에서 정리하고 있다. ‘평전류’ 책의 한계 또한 명백하다. 리선생 삶의 의미에 대한 현재적 재해석이나 ‘상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로는 철학자 홍윤기가 쓴 『철학시민 그분, 리영희!』(2011)와 최영목의 『언론자유와 우상타파를 위한 불퇴전의 삶』(2012)이 있다. 홍윤기는 리선생의 『상고이유서』나 『D검사와 이교수의 하루』와 같은 글을 예로 들면서 리영희의 삶이 ‘철학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한다.

7) 민정이양 요구 등이 담긴 박정희-케네디 회담 내용에 관련된 1961년 11월 15일자 합동통신 기사. 이 기사로 인해 리기자는 본국으로 즉각 ‘복귀’하라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게 된다.

자기시대를 구획하는 권력의 저질스러움에 대해 끝없이 항거하는 방식은 철학에서 고전적으로 훈련시키고 자하는 이성적 논변, 철학함 그 자체이다. 선생은 이런 상대권력을 놓고 쉼 없이 논변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계속 정당한 것으로 근거 지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상대권력체로부터 폭압이외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자신들이 갖지 않았다는 자인을 받아내곤 했다(홍윤기, 2011, 350쪽).

최영목은 리선생 작고 1주기를 맞아 리선생의 삶과 사상을 언론사상 중심으로 정리하고 현재적 의미를 조명했다. 리선생의 언론인이자 언론학자로서의 삶과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홍윤기와 최영목의 글도 리선생 작고 후에 리선생에 대한 ‘추모’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3. 리영희 삶의 궤적

리영희선생의 역사에 대한 감각은 거의 본능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맹수나 작은 벌레들이 그들이 사는 환경의 어떤 일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역사 변전이나 그 행방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은 그의 타고난 인식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가 받아들인 오랜 수난의 역경 가운데서 터득한 통찰 때문이기도 하다(고은, 1990, 409쪽).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리영희 선생은 전반기 30년을 학생·군인으로 살았고 후반기 50년을 기자·지식인으로 살았다. 리선생은 1957년 기자가 된 후에 거의 일관된 관점과 태도로 글을 쓰고 실천을 하며 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리선생 삶의 단계를 구분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자연인 리영희 인생 역정을 신분과 직업의 변화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는 있다. 학생시기(1929년 출생에서 한국해양대 졸업까지), 군인시기(안동중 영어교사에서 1957년 소령 예편시기까지), 기자시기(1957년 합동통신 외신부기자에서 1971년 10월 해직되는 시기까지), 교수시기(1972년 한양대 부임에서 1995년 정년퇴임까지), 시민시기(대학 퇴임 후 2010년 작고 때까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선생의 ‘신분’은 학생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기자로, 기자에서 대학교수로, 대학교수에서 ‘시민’으로 변했다. 직업에 따른 구분이 자연인 리영희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신분의 변화와 리선생 사상이나 가치 변화의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리선생의 삶을 두 시기로 구분했다. 지식인 리영희의 형성기(출생에서 제대)와 실천기(1957년 기자가 된 후 작고할 때까지)가 그것이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세계관 형성시기’와 ‘정론직필 실천시기’라고 할 수 있다.

#### 1) 리영희의 형성과정: ‘학생 30년’

리영희선생은 1942년 대관공립보통학교를 마친 후 경성으로 가서 주로 일본인이 다니는 5년제 학교 인 경성공립공업학교에 입학했다. 자서전(『역정』)에 따르면 이 시기 경험의 핵심은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가난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다. 8.15해방 이듬해 경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학비면제에 속식

까지 제공'하는 국립해양대학교 1기생으로 입학한다. 재학 중 실습항해를 나갔다가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직접 목격한다. 특별한 꿈이 있어 해양대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졸업 직후인 1950년 3월 안동중학교 영어선생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게 된다. 해양대 동기생 부친이 당시 안동중학교 교장선생이었기 때문에 쉽게 선생이 될 수 있었다.

학교 사택까지 배정받은 후 부모님을 모셔와 함께 살게 된다. 서울에 있는 동생 명희까지 데려와 모처럼 가족이 모여 살 꿈에 부풀어 있었다. 평화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6.25가 발발했고 대책 없는 피난길에 올라야했기 때문이다. 피난 중에 대구의 학무국(도교육청)에 갔다가 '유엔군 연락장교단' 모집 광고를 보고 자원입대하게 된다. 이후 7년간의 육군 통역장교 생활은 리선생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민방위군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리승만 정권의 부패타락상, 군대사회의 모순과 비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깨우치게 되는 '세상만사 새옹지마'라는 인식 등이 대표적이다.

군대에 들어올 때만해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던 일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실들에 그것과는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다는 데에 눈이 뜨이고 있었다...미국의 생활습관을 더 잘 알게 되고...그들의 언어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될수록 민족의식이 깊어지는 것을 자각했다. 한국전쟁의 민족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에서도 시야가 넓어져갔다『역정』, 1988, 233쪽).

제대직전인 1956년 결혼했고 이듬해인 1957년 육군소령 예편과 동시에 합동통신사에 입사한다. 기자가 되기 전 리선생의 주요한 '원체험'으로는 경성유학, 8.15 해방과 친일파의 득세, 해양대학 생활, 김구선생 피살, 안동중학교 영어선생, 6.25발발과 통역장교 입대, 군대에서의 주요한 체험들(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휴전 후 후방에서 군대 비리 체험 등), 동생 명희의 죽음 등을 들 수 있다.

## 2)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

리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부친은 무조건 착하기만한 선비형 인간이었고, 모친은 정반대로 드세고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고 누구에게도 지려하지 않는 성품이었다. 모친은 한마디로 '벽창우'처럼 억세고 강직했다(『역정』, 1988, 42~43쪽). 리선생의 저돌적이며 굽힐 줄 모르는 '전투적 계몽주의'는 모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부친은 리선생의 그런 직선적 성격 때문에 평생 노심초사한 것으로 보인다<sup>8)</sup>.

가족 이외에 리선생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리선생 글에 자주 등장하는 김구와 노신, 무위당 장일순을 들 수 있다<sup>9)</sup>. 특히 김구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노신의 계몽주의-민중주의적 글과

8) 부친(李根國)은 1955년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기기도 했다.

"자식이 성미가 급하고 너그럽지 못하며, 말과 행동이 가파르고 곧아서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오만해서 세상 살아감에 있어 실패가 많겠다.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역정』, 1988, 267~268쪽)

9) 리선생은 1989년 한 인터뷰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독일이테올로지』와 『경제학·철학 초고』 등 마르크스의 초기저작을 꼽았다(리영희-김영모 대담, 1990, "다시 전환시대를 찾아서", 월간 『옹저버』, 1990년 1월호 『좌·우』에 재수록). 리선생은 1950년대 군대시절 이후 마르크스의 저술을 읽으면서 세상의 모순관계의 실체를 이해하게 된다(리영희-백영서/정민, 1989, 585쪽).

글쓰는 자세는 리선생의 삶과 글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학생시절 김구(1876~1949)선생에 대한 존경은 각별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분이야말로 ‘사심 없이’ 동포를 사랑했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하고, 외세에 굴종하거나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의 분단을 한사코 반대한 정치인으로 비쳤기 때문이다.”(『자유인』, 1990, 31쪽) 이승만이나 친일과 정객들처럼 권모술수와 반민족적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던 지도자들이나 군상들과 비교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김구의 강직함과 비타협적, 외골수적 태도는 리영희 선생의 이후 삶과 비슷한 면이 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노신(1881~1936)이다. 리선생이 우상을 공격할 때 특히 잘 드러나는 글쓰기 스타일에 대해 백영서는 ‘송곳으로 찌르고 거기에서 소금까지 뿌리는 문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리영희-백영서/정민, 1989, 583~584쪽). 리선생은 노신의 사상과 글, 민중에 대한 사랑, 글을 쓰는 스타일 등에서 많이 배웠다고 몇 차례 술회한 바 있다.

나의 글 쓰는 정신이랄까, 마음가짐이랄까 하는 것은 바로 노신의 그것이에요. 글쓰는 기법, 문장 미(美), 속에서 타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때로는 정공법으로, 때로는 비유·은유·풍자·유머·해학·익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세련된 문장작법을 그에게서 배웠어요(『대화』, 2005, 729쪽).

지난 한 시대에 내가 이 사회와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그 것은 간접적으로 노신의 정신과 문장을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 역할을 자처했고 그것에 만족한다(『코』, 1988, 82쪽).

노신의 문체나 스타일뿐만 아니라 민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노신에 대한 경도는 처절하고 신산했던 리선생의 생존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리선생은 자신이 톨스토이의 작품보다는 노신의 작품에서 더 공감을 느낀다며, 노신의 경우 중국의 민중(농민)을 감상적으로 미화하지 않고 그들이 무지와 탐욕, 이기주의, 겉치레와 유교적 친족주의에 함몰되어 있음을 냉정하게 묘사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파스함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다(『역정』, 1988, 226쪽).

리선생의 김구 존경은 확실히 애국투사 김구의 강한 민족주의 이미지에 근거하는 면이 있지만 노신의 경우 그의 글을 꼼꼼히 읽으면서 얻은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다. 강준만은 리선생의 노신존경이 이성적인 것이라면 김구 존경은 다분히 감성적인 것(강준만, 2004, 162쪽)이라고 평가했다. 리선생은 정년 후 ‘노신의 나라’에 가서 노신에 대해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중국어 회화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문학적이면서도 날이 서있고 해학과 재치가 돋보이는 리선생의 문체는 노신의 것을 ‘차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 리선생이 존경하고 의지했던 동시대인으로 장일순(1928~1994) 선생을 꼽을 수 있다. 장선생은 리선생보다 한두 살 위였지만 인격, 사상, 품위, 경륜 등 모든 면에서 10년 이상 위로 모시며 존경하고 의지했다(『대화』, 2005, 466쪽).<sup>10)</sup> 리선생은 장일순 선생의 통합적 세계관, 사고의 유연함,

10) 리선생과 평생 ‘호형호제’했던 인물로는 고은, 장울병, 한승헌, 김상현, 신흥범, 이강수, 이상희 등과 ‘거시기 산악회’에 모였던 이돈명, 송건호, 백낙청, 이호철, 박현채, 김정남, 박중기, 유인호, 조태일, 김영덕, 변형운, 정기용, 박석무 등을 들 수 있다. 1989년 나온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두레)의 편집위원과 집필자들도 ‘핵심 인맥’이다. 편집위원으



철저한 삶의 자세 등을 존경했다.

나는 무위당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과 자연과 우주와 어울려서 사는 분의 사상이나 자세에는 어렵도 없죠. 나는 너무 서양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사회를 직선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분석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같은 의미에서 무위당은 종합적이랄까, 총괄적이랄까, 잡다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의 보자기로 싸서 덮고 거기에 융화해 버린단 말이에요. 난 그걸 굳이 골라서 A,B,C...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작은 거죠. 차원이 낮은 거고...둘째는 역시 나는 감히 못 따를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인데, 그 철저하면서도 하나도 철저한 거 같지 않으신, 이게 말이 좀 모순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리영희-전표열, 2002)

리선생은 1994년 5월 장일순 선생이 작고했을 때 지체 없이 원주로 달려가서 통곡한 후 조사를 썼다<sup>11)</sup>. 리선생 삶은 늘 긴장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런 삶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예상되는 그러한 현실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리선생은 엄혹한 시대의 압박과 스스로 판단한 계몽의 필요에 따라 직선적이며 '전투적' 삶으로 일관했다. 대학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좌고 우면하며 관조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늘 장일순과 같은 '통섭의 삶'을 동경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리선생의 삶과 세계관과 인간관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은 어머니와 김구, 노신과 장일순 등이다. 마르크스의 초기 휴머니즘 관련 저작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모친의 비타협적인 강직함, 김구의 수미일관한 민족주의, 노신의 문체와 민중 중심주의, 무위당의 대승적이면서도 철두철미한 삶의 자세 등이 리영희 선생의 사상, 언론사상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3) 리영희의 사회적 실천: '언론인 50년'

#### (1) 정치사회적 주요 사건

리선생의 삶은 해방과 전쟁, 독재정권과 4·19혁명, 군사쿠데타와 공포정치, 신군부와 광주학살,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와 맞닿아 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수난이 이선생의 언론인, 지식인으로서의 실천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언론인 50년'간 겪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사회주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4·19혁명 직전 리선생은 자유당 정권의 부패타락상을 비판하는 글을 기사로

---

로 한승헌, 고은, 백낙청, 정창렬, 임재경, 이부영, 신흥범이 참여했다. 문집에 글이나 화보를 기고한 사람으로 문화예술계의 장일순, 임옥상, 박재동, 고은, 신경림 등이 있고 학계인사로는 강만길, 백낙청, 서중석, 박현채, 장을병, 김세균, 김금수, 정해구, 조희연, 최원식, 정운영, 유홍준, 최원식, 조순경, 백영서 등이 있다. 언론인 송건호, 언론학계의 이강수, 김승수, 시민단체의 박원순도 참여했다.

11) "선생님은 한 시대를 변혁한 큰 업적과 공로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한 알의 작은 좁쌀(-粟子)로 자처하며 사셨습니다. 원주시 봉산동의 그 누옥에서 오로지 떡과 버루와 붓과 화선지를 벗삼아 한낱 이름 없는 선비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참으로 고결한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고결한 삶이었습니다...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후학 동생이 삼가 눈물로 고하나다."(『코』, 1998, 267쪽)

쓰는 한편 『위싱턴포스트』에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었다. 실제 4·19가 발발했을 때 리선생은 학생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미국대사관에 찾아가 문정관 그레고리 헨더슨을 만나기도 했고, 메가폰을 들고 학생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리선생은 4·19혁명의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돌이켜보면 4·19는 세계에 독재정권과 부패한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투쟁의 봉화 역할을 했다. 4·19의 파동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멀리 아랍세계의 터키에서...민중봉기를 촉발하였다. 전 세계가 한국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으니 이 민족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역정』, 1988, 334쪽).

하지만 4·19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5·16이후 박정희의 철권통치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1979년 우상의 죽음으로 리선생은 잠시 자유의 몸이 되지만 ‘광주학살’이후 다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추방’된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비로소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 언론 기고와 『한겨레신문』 창간 등에 적극 나선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했을 때 리선생도 큰 혼란에 빠진다.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의 기본 원인이 이기심과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본원적 속성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라는 인간성 존중의 철학사상으로 인간성을 ‘개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진다.

지난 몇 해 사이에 일어난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지식인의 상황예측 능력에 대한 회의를 일으켰다. 지식인 사회의 인식능력 한계에 대한 자기 확신은 그들을 심한 혼란 상태에 몰아넣었다.”<sup>12)</sup>

여기서 지식인이란 사실 리선생 자신이다. 리선생이 주창한 것은 근본적으로 휴머니즘내지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웠지만 많은 ‘후학’들은 사회주의권 붕괴 사태에 대해 리선생이 나름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리선생은 사회주의 실패, 패배를 ‘담담하게’ 인정했다<sup>13)</sup>. “자본주의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적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미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류를 위해 크게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일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느긋하게 자기체질을 바꾸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주의가 바뀐 만큼 자본주의도 바뀌어야 할 역사적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리영희-장명수, 1991)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향후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 언론계의 주요 사건

리선생이 기자가 된 1957년 이후 한국 언론에도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경향신문

12) 리영희(1991), 『변혁시대 한국 지식인의 사상사적 좌표』, 1991년 1월 26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연구회 월례토론회 발표문 서두. 전문은 『좌·우』, 저작집 8, 213~231쪽에 『사회주의 실패를 보는 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 사회주의는 이기적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3) 이에 대한 논란은 강준만, 앞의 책, 192~203쪽 참조.

폐간, 조용수 사형집행, 언론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암흑시대였다. 6월 항쟁 이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는 등 언론이 일정하게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1950년대 후반 국영방송과는 확연히 다른 부산문화방송과 같은 민간방송들이 개국했고, '친일 트라우마'가 없는 경향신문 등이 등장하여 정론을 펴는 상황이었다. 이승만정권의 경향신문 폐간, 5·16쿠데타와 언론통폐합,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형사건, 5·16장학회의 부산일보와 부산MBC 강탈, 경향신문 복간과 공매처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국영방송 KBS와 재벌방송TBC 시대의 개막 등 '세기적'인 사건이 이어졌다. 특히 이승만 정권의 경향신문 폐간과 박정희 정권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형집행은 언론탄압의 대표적 사례였다.

자유당 정권은 1959년 4월 30일 당시의 대표적 비판 언론이었던 가톨릭 재단 소유의 경향신문에 대해 군정법령 제88호<sup>14)</sup>를 적용하여 폐간명령을 내렸다. 리선생은 당시를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반대하던 경향신문이 폐간된다. 그것도 식민지와 다름없던 시대의 미군정법령 제88호(언론통제)의 몽둥이에 맞아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때려잡는 보안법 파동이 산천을 들쭉하고 지나갔다. 멀리 마주 보이는 서대문형무소의 교수대에 일제하의 애국지사 조봉암(曹奉岩)의 시체가 누워있는 것이 보인다. 정권이 조작한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패가 시체의 옆에 세워져있다. 반공이라는 법률의 이름을 빌린 학살이 나라 방방곡곡에 찍은 냄새를 가득 채우고 있다(『역정』, 1988, 260-261쪽).

1961년 2월 13일 조용수가 창간한 민족일보는 창간 전부터 보수진영의 의혹과 경계 대상이었고 '용공'으로 몰아가기 위해 조총련 자금 유입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김영희, 2007). '민족일보사건'은 명목상으로 신문인이 극형, 또는 중형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필화사건이다. 민족일보는 1988년 국민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기 전까지 유일하게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진보 신문'이었다. 민족일보 폐간 후 한국에 새로운 진보언론이 등장하기까지 27년이 걸린다<sup>15)</sup>.

'언론인 50년' 시절 리선생이 관련되었던 주요한 '사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합동통신사 입사(1957), 장남과 부친의 죽음(1959), 폴브라이트 계획에 따른 노스웨스턴대 연수(1959~1960)<sup>16)</sup>,

14) 미군정이 1946년 제정한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이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이란 1년에 1회 이상 발행을 하며, 사회명사 또는 공익에 관한 정보 또는 여론을 전파함에 진력하는 발행물을 말한다.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은 허가 없이 인쇄·발행·출판·배포·배부·판매·판매권유·우송·전시·진열하지 못한다. 그 허가는 미군정청 상무부장이 담당한다.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허가증은 항상 잘 보이게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 법령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언론탄압의 근거로 삼았다.

15) 리선생은 지난 2004년 11월 25일 향린교회에서 열린 조용수 평전 『조용수와 民族日報(중보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민족일보 첫 호에는 창간의 변이 있었지만 마지막 호는 폐간의 변도 없이 끝나버렸다. 그나마 43년 뒤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데 역사적 변화를 실감하지만 기사지면을 읽어보면 아직 우리 국가와 사회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통일뉴스』, 2004년 11월 25일자)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사건에 대해 위헌 만장일치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명예를 회복시키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6) 말아들이 1년 2개월 만에 지병으로 죽고 나서 큰 상심에 빠져있던 리선생은 평가 생활의 변화를 주기 위해 미국무성이 '폴브라이트계획'으로 지원하는 언론인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다. 리선생은 가서 뭘할 것이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과학보도'를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 점수를 탄 것 같다고 적었다(『역정』, 1988, 265쪽). 리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언론인들이 폴브라이트 지원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요즘도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은 폴브라이트 동창생들이 1957년에 만든, 국내에서

박정희-케네디 회담 특종 등(1961) 조선일보 외신부장(1965) 및 강제해직(1969), 합동통신사 외신부장(1970) 및 강제해직(1971), 한양대 교수 부임(1972), 『전환시대 논리』 발간(1974), 『우상과 이성』 발간 및 구속, 한양대 강제해직(1977), 한양대 복직 및 재해직(1980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건으로 구속(1984), 한양대 복직(1984), 동경대 및 하이델베르크 대 초빙교수(1985), 미국 버클리대 초빙교수(1987), 한겨레신문 이사 및 논설고문(1988), 한겨레 창간 기념 방북취재기획 건으로 구속(1989), 한양대 정년퇴임(1995), 뇌출혈 발명 및 공식 활동 중단(2000), 『대화』(2005)와 리영희 저작집 출간(2006) 등이다.

### (3) 사회적 실천: 기자, 교수, 시민

리선생의 ‘언론인 50년’은 기자시기(1957년~1971년), 교수시기(1972년~1995년), 시민시기(1995년~2010년)으로 나눌 수 있다. 리선생은 1957년 우연히 합동통신사에 입사한 후 1971년 해직될 때까지 긴박했던 한국현대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참여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의 회유와 협박, 연행과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군사정권의 부패타락, 미국의 패권주의, 베트남전쟁의 진실, 한일 국교정상화의 굴욕에 대하여 기자로서 진실을 기록했다.

국내 미디어뿐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나 뉴리퍼블릭과 같은 미국의 유수의 미디어에도 수시로 기고했다. 리영희기자는 특종 기자로 유명해졌지만 이로 인해 수난이 시작된다. 첫 특종은 1961년 11월 박정희 미국방문 수행취재 과정에서 터트린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등을 밀약한 ‘박정희-케네디 회담의 비밀’에 관한 기사였다. 이후 외신부에서 정치부로 옮긴 리기자는 1962년 홍수 등으로 한국이 엄청난 식량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식량원조가 지연되는 이유를 추적하여 특종 보도한다.

1964년 조선일보 외신부로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비동맹회의에서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논의’관련 보도와 일본의 유사시 한반도 군사개입 시나리오와 모의훈련에 관련된 ‘미쓰야(三笑)계획’과 같은 영향력 있는 기사를 내보냈다. 베트남 파병(1964년 9월)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의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한다. ‘통킹만 사건’의 진실 등을 최초로 탐사 보도하던 시절은 기자 리영희 삶의 한 절정이었다(김삼웅, 2010, 184~197쪽).

그 모든 ‘특종’적 또는 ‘예언’적 글들은 한마디로 진실을 추구하려는 집념의 결정이었다. 이 한 가지만은 평생에 자랑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도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다(저작집5 『변증』, 2006, 361쪽).

리선생은 1969년 군사정권의 압박으로 조선일보사에서 강제 퇴직당한 후 잠시 서적 외판원으로 일하다 합동통신사 외신부장으로 복직한다. 1971년 10월 ‘64인 선언’<sup>17)</sup>으로 합동통신사에서 다시

가장 오래된 언론인 단체다.

17) 3선 개헌 저지에 실패한 뒤 좌절에 빠져있던 민주진영 인사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1971년을 ‘민주수호의 해’로 정하면서 1인 장기집권의 탐욕을 막는 데 힘을 모았다. 이에 4월 서울 YMCA에 각계 대표들이 모여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구성했다. 1971년 4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재준, 이병린, 천관우를 대표로 선임하고 신순언, 이호철, 조항록, 김정래, 법정, 한철하, 계훈제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리영희는 제2기 이사로 참여했다.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에 따르면, “10월 19일 각계 인사대표, 위수령과 휴업령 즉시 철회, 체포된 학생 즉시 석방, 특권층의 부정부패 척결, 정보정치 폐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64인 지식인선언’ 발표.”라고 기록돼 있다. 언론계에서는 합동통신 외신부장 리영희와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가 ‘64인 지식인선언’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이로 인해 언론계에서 추방되었다. 리영희는 두번째 언론사의 해직인 셈이다. 1971년 11월의 일이다.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지 2년만의 일이다(김

쫓겨난 리선생은 1972년 1학기에 한양대 신문학과 조교수로 부임한다<sup>18)</sup>. 학교로 옮긴 후 리선생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통해 '우상'과 '전쟁'을 벌인다. 긴 호흡의 글들이 늘어난다. 대표작 『전환시대의 논리』(1974), 『우상과 이성』(1977), 『8억인과의 대화』는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 출간되었다.

리선생이 언론학 교수가 된 것도 우연의 산물이다.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대학으로 간다. 언론인 출신이라 신문학과 교수가 되었지만 강의할만한 마땅한 과목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열을 저술활동에 쏟아 부을 수 있었다(리영희-김동춘, 2000, 305~306쪽).

리선생이 8년여의 해직기간을 거쳐 복직한 1984년 대학은 크게 달라져있었다. 안정기에 접어든 전두환 정권은 대학에 상주하던 경찰을 철수시키고 '학원자율화' 조치를 취하면서 리영희 교수 등 해직교수를 복직시켰다.

광주민주항쟁을 겪고 난 뒤 전국 대학의 이념적 지형이 거의 한 세기를 뛰어넘은 것과 같은 상태였던 만큼 한양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그 때까지 단 한 시간의 정식 강의도 들어보지 못한 사회주의이론, 철학, 정책, 마르크스주의 이론 강좌, 마오쩌둥 대중언론이론 등 이른바 좌파 마스크 강좌의 특설을 요구하고 나섰지...나는 학생들의 대대적 각성의 표현인 이와 같은 지적·사상적 변화에 호응해서 강의시간에 보수적 마스크 이론과 진보적 이론을 아울러 제시하려 노력했어요(『대화』, 2005, 574~575쪽).

리선생이 한양대 교수가 된 후 초기에 주로 강의한 것은 <신문원론>이나 <기사작성>과 같은 과목이었고 복직이후에는 언론 비평이나 언론과 국가, 사회주의 휴머니즘 영역으로 확대된다. <신문평론>, <신문학 원론>, <마스크 문장론>, <국제 커뮤니케이션>, <언론과 국가> 등과 같은 과목이었다<sup>19)</sup>.

리선생은 한양대에서 1995년까지 24년<sup>20)</sup> 재직한다. '기자'로서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대학에 와서 저술활동과 강연 등 사회활동 비중이 늘었을 뿐이다.

삼용, 2010, 239쪽).

- 18) 리선생은 조선일보사 재직당시 한양대에서 강의한 것이 인연이 되어, 당시 한양대 신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던 장용 교수의 추천으로 한양대로 가게 된다. 장용교수는 1967년 미주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양대 신문학과에 부임하여 1977년 9월 8일 심장마비로 별세할 때까지 재직했다. "장용(張龍) 교수가 정년퇴임하면서 그를 추천한 것이다."라는 김삼용의 『리영희평전』 262쪽의 기술은 잘못된 것이다.
- 19) 리선생이 1984년 복직 이후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고 토론한 책들로는 조지 헤링(George C. Herring)의 *The Pentagon Papers*(1971), 월터 브래쉬(W. Brasch) 등이 엮은 *The Press and the State: Sociobistorical and Contemporary Interpretations*(1986), 유네스코에서 국제정보 유통문제를 정리한 *Many Voices, One World*(the McBride report, 1980), 엔젠스베르거의 『대중매체와 의식조작』, 제임스 커런 등이 편집한 『현대언론과 사회』 등과 같은 주류 언론학에 대한 '대안' 성격의 책들이 많았다. 퇴니스의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독일이데올로기』, 박원순의 『국가보안법 연구』와 같은 휴머니즘 계열의 책도 단골 교재였다. 리선생은 신문학과에 책을 두고 있기는 했지만 미국식 기능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언론학계 풍토를 '혐오'했다. 기고문 등에 자신의 전공을 '중국현대사' 혹은 '국제관계론'이라고 표기했다.
- 20) 투옥기간과 해직기간을 제하면 약 16년간 한양대에 재직하였다.

한양대학교 재직 첫 6년 동안은 지적 생산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린 시기였어. 이 사실은 이 기간에 내가 연구·발표한 논문의 일람표를 봐도 알 수 있어요...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일은 거의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으니까, 나의 의지력이나 사명감도 대단했지만 육체적 건강도 놀라웠던 것 같아(『대화』, 2005, 451쪽).

리선생도 술취하고 있듯이 한양대로 옮긴 후 놀라운 ‘투혼’으로 왕성한 집필활동을 벌인다. 1980년~1984년 해직시기에도 『중국백서』(1982), 『10억인의 나라』(1983),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1984), 『분단을 넘어서』(1984), 『핵전략의 위기와 구조』(공저, 1984) 등 5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후 1995년 정년퇴임 때까지 펴낸 책으로는 『베트남 전쟁』(1985), 『한국 민족주의운동과 민중』(공저, 1987), 『역설의 변증』(1987), 『역정』(1988), 『반핵』(공저, 1988), 『自由人, 자유인』(1990),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1994) 등이 있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스핑크스의 코』(1998년), 『반세기의 신화』(1999년), 『동굴속의 독백』(1999년)<sup>21)</sup> 등을 출간했다.

이렇듯 리선생의 교수시절 삶은 성역과 금기에 도전하는 책과 글로 점철되어 있다. 집필활동의 결과는 가혹했다. 그저 글을 쓰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두 번 해직(1차-1976년 2월, 2차-1980년 7월)<sup>22)</sup>되고 네 차례 구속(1차-1977년 12월, 2차-1980년 5월, 3차-1984년 1월, 4차-1989년 5월)<sup>23)</sup>된다.

정년퇴임 후 리선생은 절필을 선언하는 등 ‘언론계’를 떠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미관계, 대북문제, 파병문제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발언하고 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리선생은 사회적 실천의 확산을 위해 자신의 글뿐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다. 누군가 책이나 신문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우상’의 비리 폭로나 진실 전파에 용감하게 나설 경우 전화나 팩스, 우편엽서 등을 통해 즉각 연락하여 공감의 뜻을 표하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른 손이 마비되어 글을 쓸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정연주 KBS 사장<sup>24)</sup>을 비롯하여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분들이나 신문 등을 통해 돋보이는 글을 발표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격려 전화나 메시지를 전했다. 리선생 특유의 ‘격려저널리즘’(최영목, 2011)이라고 할 수 있다. 리선생은 MB정권이 들어서고 1년 반쯤 지난 2009년 7월 ‘고별 강연’<sup>25)</sup>에서도 MB정권을 파시즘체제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21) 리선생 고회를 기념하기 위해 이미 출간되었던 글 중에서 가려 뽑아 편집한 것이다. 리선생의 글 중에서 비교적 부드럽고 인간적인, 일상적 이야기들을 엮었다.

22) 1차 해직은 1976년 2월 교수제임용제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지식인 사회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교수제임용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로 1976년 2월 백낙청, 김병걸, 리영희 등 416명의 교수가 제임용에서 탈락되었다. 리선생은 1979년 10.26이후에 복직했다. 2차 해직은 ‘광주 소요 배후주동자’의 한사람으로 날조되어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1980년 7월에 이루어졌다. 만 4년 1개월이 지난 1884년 7월 복직했다.

23) 1976년 12월 27일 『전논』 『우상』 『8억인』 등 저서의 내용이 반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1차 구속되었고 2년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1980년 5월 17일 ‘광주소요 배후 주동자’의 한사람으로 날조되어 2차 구속되었고 두 달 만에 석방되었다. 1984년 1월 10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각급 학교 교과서 반통일적 내용 시정연구회’ 지도 사건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3차 구속되었고 두 달 만에 석방되었다. 1989년 4월 14일 『한겨레신문』 창간기념 취재기자단 방북취재기획전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4차 구속되었다가 160일 만에 석방되었다.

24) 리선생은 정연주 사장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나는 지금 정상장의 모습에서 마치 이순신 장군을 보고 있는 느낌ियो. 반민주집단의 폭력과 모략으로 꺾이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명예롭게 소임을 다하시오. 그래서 민주주의에도 영웅이 있을 수 있다는 법과 선례를 남기시오. 명예로운 죽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오.”(정연주, “정연주의 증언”, 『오마이뉴스』, 2009년 10월 1일)

25) 조계사 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인권연대 10주년 기념식’ 강연(2009년 7월 1일),

지난 일 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반인권적 파시즘시대의 초기에 들어섰다...역사는 이뤄진 열매위에 또 하나의 큰 열매가 열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늦추면 언제든 역전되는 것이다...짧은 10년이지만 우리가 이룩했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불퇴전(不退轉)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경향신문』2009년 7월 2일자).

리선생이 말년에 병든 몸을 이끌고 현장을 다니며 자연인으로서 설파하고자 했던 핵심은, 특정 권력자나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을 공유하는 시민이 직접 나설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평범한' 진실이었다(최영목, 2011).

#### 4. 리영희의 사상, 언론사상

리영희의 생애를 꿰뚫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휴머니즘 정신이다. 그에게 휴머니즘 정신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애국적 정의감' 형태로 자리 잡는다. 그것이 군복무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비인간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발전해간 것으로 보인다(박병기, 1996, 33~34쪽).

리영희 선생은 평생 언론인으로 살았지만 언론과 관련하여 체계적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1959년 미국(노스웨스턴대 등)에 6개월 체류하면서 미국의 언론현장을 돌아보고 미국식의 언론자유, 언론시스템을 경험한 것이 거의 전부다. 한국전쟁 당시 통역장교 생활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언론인과의 교류는 이후 리선생의 언론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리선생의 언론관이나 언론인으로서 자세는 구한말 이후 '지사언론'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 내가 언론사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지사(志士)정신, 즉 뜻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의 이익을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지사정신이었을까, 이런 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일제하에서 신문기자는 민족을 대표하는 지식인의 꽃이었거든요. 그런 긍지와 민족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종사하는 누구나가, 또는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지도적 언론인의 상당수가 지사적인 정신으로 펜을 들고 언론활동을 했지요(리영희-김동춘, 2000, 301쪽).

리선생은 삶의 본질적 문제나 특정한 주제를 천착한 철학자나 사상가라기보다는 모순과 비리로 얼룩진 당대 현실에 대한 고발과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한 강직한 계몽주의자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비타협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는 철학적 사유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기본이기도 하다. 리선생은 일상적으로는 글쓰기를 통해 권력과 우상 해체 작업에 나섰고, 구속 등을 통해 권력이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는 말을 통한 논변을 통해 폭압적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리선생의 의도적 선택의 산물이 아닌 지난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철학이자 신념이라 할 수 있다(홍윤기, 2011).

리영희 사상의 핵심은 휴머니즘과 자유다. 이는 언론이나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근본가치와 다르지

않다. 리선생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사회에서 ‘사상의 은사’가 되었고 그의 글쓰기와 사회적 실천 활동은 한국사회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확대, 실천으로서의 저널리즘 정신 확산, 대안언론과 참여언론 발전에 기여했다.

### 1)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리선생이 언론사 기자직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것은 언론자유는 실천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점과 어느 경우에도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리선생은 『우상과 이성』(1977) 서문에서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 일 수 없고 이웃과 나뉘어져야 할 生命인 까닭에 그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理性的의 행위이다. 그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리선생은 1978년 11월 26일 감옥에서 자신의 저서를 반공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광기의 현실을 통렬하게 질타하는, 4,300자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쓴다. 표현의 자유의 사회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결론부분이다.

오늘의 현실은 오늘에 앞서는 30년간의 억압적 언론·출판정책의 ‘역사적 결과’입니다. 반공법의 근본적 운영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상론’이 아닙니다...적어도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출판과 언론의 폭넓은 자유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회는 언제까지나 반공법 또는 그와 같은 억압적 법률의 필요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법률과 운용에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론과 출판 등 민주적 내용이 개화하는 사회는 요원한 먼 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저작집 5. 『변증』, 2006, 508~509쪽).

1980년대 후반 국내 신문과 방송이 민주화되기 전까지 한국언론은 그야말로 ‘암흑시대’였다. 1979년 말 시대의 ‘우상’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을 때,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잠시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지만 그 때 뿐이었다.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리선생의 언론출판의 자유 필요성에 대한 ‘설과’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는 문화, 예술이 꽃필 수 없으며, 심지어 가치중립적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문학을 들어봅시다. 노벨문학상이 한국에서 안 나온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활동이란 진정으로 자유로운 생각(사유, 사상)이 보장되는 가운데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광적인 반공사상은 냉전주의와 하나가 되어서 휴머니즘을 왜곡하는 법입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인간 사상을 짓밟으면서 유일한 가치를 강요합니다<sup>26)</sup>.

26) 리영희, “전환기 시대 민족 지성과 동북아 평화”(강연록집), 『사회문화리뷰』, 1996년 12월호, 강준만, 『리영희-한국 현대사의 길잡이』, 개마고원, 2004, 323쪽에서 재인용.



## 2) '실천'으로서의 글쓰기

리영희의 의도는 현재와 같이 중국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지도 못하고 중국에 관한 연구 자체가 신체적 위협이 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바로 그런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타파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영희의 글쓰기는 실천의 표현이 된다. 그게 중요하다. 리영희의 글쓰기는 그의 실천을 드러내며, 이론과 실천의 통일적 표현이다(김만수, 2003, 316~317쪽).

리선생이 글쓰기에 매진하던 시기는 자유당정권, 유신정권, 신군부의 5공화국이라는 파시즘 체제였다. “허위와 미신이 우리를 질식시키는 잔인한 ‘겨울공화국’ 시대였다. 겨울공화국의 허위와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계몽이 필요했다. 그 계몽은 ‘근대’를 위한 부르주아식 계몽이 아니라 분단사회의 반동부르주아적 파시즘이 만들어낸 몽매로부터의 계몽이었다. 리선생은 이러한 새로운 계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투를 벌인 것이다.”(김세균, 1991, 9쪽)

요컨대 우상이 진실을 은폐하며 이성의 작용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시기에 ‘진실’을 위한 글쓰기는 단지 글쓰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실천행위 일수밖에 없다. 리선생의 글쓰기는 ‘우상’의 본질, 본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글을 쓰는 행위자체가 사상의 자유, 언론에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려하는 현실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리선생은 그 글쓰기가 가져올 위협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썼다. 그 것이 기자, 지식인의 ‘본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은 무엇인가? 그 것은 행동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냉전의식이 지배했던 사회 속에 사상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를 내세우는 싸움, 그것을 언론의 자유라는 형태로 신문사에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리영희-백영서/정민, 1989, 611쪽).

리선생은 기자가 된 후 일관된 자세로 쉽 없는 공부와 탐구를 통해 현상의 숨겨진 이면, 권력이 왜곡한 현실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기사, 논문, 비평, 저서, 강연 등의 형태로 발표했다. 리선생은 ‘우연히’ 기자가 되었지만 이후 저널리스트의 존재이유를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글쓰기에서 찾았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로서의 ‘진실기록’은 리선생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 준칙이자 ‘신앙’이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것,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공론의 장을 열면 지게되니까...그 장을 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고 행동하고자 하는 소수가 처음에는 형무소에도 가고, 경찰서에도 가고 해야지요.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르고...그 다음 둘, 셋...절대로 안바뀔 것처럼 느리지만 아주 조금씩, 이러혁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는 그런 치열한 싸움 없이 결코 변하지 않아요(김현진, 2010, 220~221쪽).

진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을 통해 정치권력은 지식인의 실천적 표현행위를 제약하려 시도했다. 리선생은 처음에 소수가 앞장서 진실을 기록하고 발표하다 보면 그 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옥죄는 우상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 3) 언론과 언론인 비판

리선생은 군대에서 6.25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패타락상에 몸서리쳤다. 15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언론의 추악한 ‘야합’과 언론인의 후안무치한 기회주의의 질타에 앞장선다. 박정희정권의 폭력 통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인 1971년 『문화과 지성』 가을호에 발표한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는 탐사와 천착, 논증과 비판이 돋보이는 기념비적 논문이다(최영목, 2012, 398쪽).

『뉴욕타임스』의 용기는 반사적으로 우리 언론의 두 가지 유형을 연상시킨다. 하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유형이다. … 전자는 상황의 변동이 생기자 말하지 않았던 비굴은 제쳐놓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세운다. 지식인과 언론의 소임에 이처럼 모독적인 유형은 없다. … 후자인 ‘비화’언론도 마찬가지다. … 오늘의 사실을 오늘에 규명하지 않고 먼 훗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비화 읽을거리의 자료로 생각하는 한, 통치계급의 횡포는 계속되고 대중은 암흑을 더듬는 상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전논』, 1974, 10~12쪽).

‘나도 알고 있었다’는 반성을 모르는 파렴치한 언론, 언론인이 지금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의 ‘비화언론’은 얼핏 진실추구에 나름대로 앞장서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권력이나 시류의 변화에 편승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언론이라는 점에서 파렴치한 언론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사회에 이러한 후안무치 언론인과 비화언론이 양산된 것은 물론 권력의 강압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권력도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 언론인들이 자초한 면도 있다.

언론을 망치는 것도 언론인 자신이고 언론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언론인 자신의 이념과 생활의 자세입니다. 권력이란 동서의 양과 시대의 고금을 가릴 것 없이 민중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그 본성이라면, 민중의 편에서는 언론기관과 기자의 직업적 본성은 기본적으로는 권력과의 대립관계입니다. 이 기본적 관계 위에서 그 밖의 구체적·특수적 관계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파악하여 특수·구체적 관계를 기본적·일반적 관계에 우선시키는 인식의 곤란과 심지어 전도를 일으킬 때 언론인은 자유언론의 사형집행자로 타락하고 맙니다(『우상(개정판)』, 1980, 358쪽).<sup>27)</sup>

리선생이 언론계에 있을 때 함께 현장을 누비던 많은 언론인이 정계로 진출하거나 학계로 가서 독재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곡학아세의 ‘요설’로 부역을 일삼았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언론인이 언론자유 말살에 앞장서온 것은 한국 언론자유 역사의 역설이다.

27) 이 글은 1975년 발표되었고 『우상과 이성』 1980년 개정판에만 실려 있다.

한국의 소위 ‘언론’ 기관 내부의 문제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광복 후 한 번도 자체 숙정을 한 역사가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집단처럼 돼버린 왜곡된 체질에 있습니다. 군정시대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소위 ‘언론’기관은 냉전시대의 일그러진 광신적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맹신자로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역대 부패·타락·반민주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습니다...이 사회의 보도기관들이 스스로 언론기관 언론인이라는 명칭을 잠정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자유인』, 1990, 93쪽).

‘문민정부’ 이후 리선생의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비판은 보다 구조적 측면으로 지향한다. 군사정권의 물리적 탄압이나 생계에 대한 위협이 약해진 상황에서도 기자들의 기회주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최영목, 2012, 400쪽).

#### 4) ‘리영희’의 영향

남한체제는 그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완전히 말살할 수 없는 체제였다. 남한에는 리영희가 있었지만, 북한에는 리영희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강준만, 2004, 319쪽).

리선생의 ‘언론실천’의 대표적인 성과로 한겨레신문 창간을 들 수 있다. 1987년 여름부터 리선생, 임재경, 이병주, 정태기 등이 모여 한글전용 가로쓰기 편집, 컴퓨터편집 인쇄, 국민민주 모집, 편집국장 직선제 등 한국 신문역사에 새 바람을 일으키자고 논의(리영희, 2005, 641~642쪽)하면서 한겨레신문 창간 작업은 본격화 된다. 미국 UC버클리에서 1학기동안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리선생은 창간작업에 적극 동참한다. 리선생은 창간당시 한겨레신문 논설고문과 이사직을 맡았다. 창간호가 나오던 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겨레신문 지령 5,000호 기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창간당시의 소회를 밝힌다.

감감했던 하늘에 번쩍 광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 데 대한 믿을 수 없는 놀라움에 압도되었지요. 한 시대가 경색되면 거기서 억눌렸던 민중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폭발했구나 하고 느꼈지요. 1979년 10·26 이후 박정희가 죽었다는 걸 광주형무소에서 전해 들었을 적에, 너무 감격에 벅차, 내 안에서 소리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내가 역사를 선취하고 살았다는,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실현된다는, 벽찬 희열로 한쪽으론 눈물이 쏟아지고 한쪽으론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그 때의 그 벅찼던 감회를 『한겨레』 창간하던 그 순간에 다시 느꼈지. 새 시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구나 했어요(리영희 -권태선, 2004).

리선생은 대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게 된 것은 한겨레 같은 언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치하하고, 아쉬운 점으로 여러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반론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기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된 기사가 눈에 띈다는 점, 국수주의 혹은 민족중심주의의 느낌이 든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리선생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민에 의한 ‘언론자유 쟁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등장하여 모든 시민을 기자로 만든 <오마이뉴스>와 지난 해 한국 사회 열풍의 진원지가 되었던

김어준의 <나는 꿈수다><sup>28)</sup>가 대표적 ‘결실’이라 할 수 있다(최영목, 2012, 402쪽). 언론인 손동우는 얼마 전 국내에 번역 출간된 ‘20세기 진보 언론의 영웅’ 이지스톤<sup>29)</sup> 평전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서평에서 “평생을 진실을 위해서 살았던 스톤의 행적에 “내가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끝난다”고 갈파했던 ‘사상의 은사’ 리영희의 전 생애가 겹쳐있다”고 썼다(손동우, 2012).

지난 2010년 12월 리선생이 작고했을 때 한국 언론과 시민사회가 보여준 관심은 상상 이상이였다. 리선생을 비판했던 언론도 리선생 죽음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는 점이 ‘리영희 영향’의 역설이다. 남북한을 통틀어 한 지식인의 죽음이 그가 종사했던 지적 활동의 전문 영역, 즉 학계, 언론계 또는 문화계의 경계를 넘어 한국 시민사회 구석까지 추모의 상념을 폭넓게 불러일으킨 경우는 현대 한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홍윤기, 2011, 331쪽). 리선생이 한국사회에 미친 일반적 영향의 핵심은 사회의식화, 즉 ‘계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언론에 끼친 핵심적 영향으로 정론직필로서의 글쓰기, 언론에 대한 비판, 표현의 자유 확대와 대안 언론 필요성 환기 등을 들 수 있다.

## 5. 맺음말

리선생은 청사에 남을 언론인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세간의 평가를 종합해 보자면 ‘사상의 은사’였고, ‘의식화의 원흉’이었고, 한국 지식인의 표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인-언론학자’ 리영희 선생의 삶과 저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리선생의 언론사상과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를 위해 리선생이 남긴 17권의 저서와 각종 인터뷰나 대담자료, 언론보도, 관련 증언, 체험적 사실 등을 검토하였다.

리선생은 자신을 학자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학자라기 보다는 국제관계나 남북문제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 리선생은 ‘언론인’으로서 평생 당대 수구 언론의 기회주의와 정치권력과의 유착, 후안무치한 상업주의, 사실과 진실에 대한 왜곡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리선생은 식민지 시절 평안도에서 태어나 해방이후 전쟁과 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엄혹한 시절 ‘50년’을 언론인으로 살았다. 군사정권 시대에 리선생이 ‘비판과 계몽’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겨울공화국’의 엄혹한 현실에 대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의 결과이기도하다. 노신과 김구, 장일순에 대한 한없는 존경에서 드러나듯이 리선생 사유의 중심에는 늘 자신과 인간에 대한 성찰과 절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 기자가 된 후 리선생의 삶을 이끈 근본이념은 실존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었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28) 김어준은 현재 대한민국 언론구조가 정권에 유착 혹은 장악된 조중동과 방송3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속에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나는 꿈수다>를 시작한다. 요컨대 강고한 구조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점에 착안한다. 구조와 정면 대결하여 구조를 깨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현재의 구조를 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근거하여 김어준은 지난 2011년 5월 진보의 프레임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 유통구조로 <나는 꿈수다>를 출범시킨다(김어준, 2011, 300~303쪽).

29) 이지스톤(Isador Feinstein Stone, 1907~1989)은 20세기 최고 언론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이다.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대화』, 2005, 7쪽)는 신념으로 일관했다.

2장에서 정리했듯이 정치학이나 철학 영역에서의 논란과는 달리 언론학계에서 언론학자로서 리영희선생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아직 초보 수준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리선생은 현장 '언론인'이자 투철한 계몽주의자로 살면서 한국사회의 사상의 자유, '실천'으로서의 저널리즘 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했고 대안언론, 시민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리 선생은 사상의 자유의 신봉자이자 우상타파를 위한 계몽적 지식인이었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언론비판과 대안언론의 주창자였다.

리선생의 저술과 인터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사상가이자 실천가였던 리선생의 면모를 일정하게 드러낼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리선생의 언론사상과 실천이 언론현장과 한국언론학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거의 논의하지 못했다. 연구자가 리선생의 언론사상과 실천이라 명명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리선생의 진면목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 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리선생 언론사상과 실천의 한계와 문제점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리선생 사상의 한계를 논의할 만큼 충분히 천착하지 못한 탓이다. 관련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자유와 역동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리선생 같은 분의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선도적' 헌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대를 살아간 모든 한국인에게 험난함 자체였던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 한국언론계, 한국언론학계에 리영희 선생이 존재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

## Ⅰ 참고문헌

—리영희선생 저서

- 리영희 (1974). 『轉換時代의 論理—아시아·中國·韓國』. 서울: 창작과비평사.
- 리영희 편역 (1977). 『8億人과의 對話—現地에서 본 中國大陸』. 서울: 창작과비평사.
- 리영희 (1977). 『偶像과 理性』. 서울: 한길사.
- 리영희 편역 (1982). 『中國白書』. 서울: 전예원.
- 리영희 편저 (1983). 『10億人의 나라—毛澤東 이후의 中國大陸』. 서울: 두레.
- 리영희 (1984a). 『分斷을 넘어서』. 서울: 한길사.
- 리영희 (1984b). 『80年代 國際情勢와 韓半島』. 서울: 동광출판사.
- 리영희 편 (1985). 『베트남 戰爭—30년 베트남 전쟁의 전개와 종결』. 서울: 두레.
- 리영희 (1987). 『逆說의 辨證』. 서울: 두레.
- 리영희 (1988). 『歷程: 나의 청년시대』.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리영희 (1990). 『自由人, 자유인』. 서울: 범우사.
- 리영희 (1991). 『인간만사 새옹지마』. 서울: 범우사.
- 리영희 (199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전환시대의 논리 그 후』. 서울: 두레.
- 리영희 (1998). 『스핑크스의 코』. 서울: 까치.
- 리영희 (1999). 『반세기의 신화—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서울: 삼인.
- 리영희 (1999). 『동굴 속의 독백』. 서울: 나남.

리영희 (2005).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서울: 한길사.

리영희 (2006). 『21세기 아침의 사색』. 서울: 한길사.

—리영희저작집(전12권, 2006, 서울: 한길사)

1. 『전환시대의 논리』
2. 『우상과 이성』
3.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4. 『분단을 넘어서』
5. 『역설의 변증』
6. 『역정—나의 청년시대』
7. 『自由人, 자유인』
8.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9. 『스핑크스의 코』
10. 『반세기의 신화』
11.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12. 『21세기 아침의 사색』

—기타 인용 문헌

강준만 (2004). 『리영희—한국현대사의 길잡이』. 서울: 개마고원.

고은 (1990). 李泳禧論—진실의 대명사. 리영희. 『자유인, 자유인』. 서울: 범우사, 404~409.

김동춘 외 (2010). 『리영희 프리즘』. 서울: 사계절.

김만수 (2003). 『리영희 살아있는 신화』. 서울: 나남.

김삼웅 (2010). 『리영희 평전—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 서울: 책보세.

김세균 (1991). 李泳禧論—우상과의 싸움. 리영희. 『인간만사 새옹지마』. 서울: 범우문고, 5~11.

김어준 (2011). 『닥치고 정치』. 서울: 푸른숲.

김영희 (2007). 현대언론인 열전 11—조용수. 『신문과 방송』, 12월호(444), 134~141.

김현진 (2010). 가혹하게 정직하고, 칼날처럼 순결하게. 홍세화 외. 『리영희 프리즘』. 서울: 사계절, 210~237.

리영희—권태선 인터뷰 (2004. 3. 4). 한겨레에 바란다—긴 안목에서 역사를 보라. 『한겨레』, 5.

리영희—김동춘 대담 (2000). 리영희—냉전이데올로기의 우상에 맞선 이성의 필봉.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서울: 역사비평사, 273~320.

리영희—백영서/정민 인터뷰 (1989). 轉換時代 理性 李泳禧 先生의 삶과 思想. 李泳禧先生華甲文集편집위원회 편.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 서울: 두레, 571~614.

리영희선생화갑문집편집위원회 편 (1989).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 서울: 두레.

리영희—장명수 대담 (1991. 6. 25). 사회주의는 끝난 것인가? 자본주의는 이긴 것인가?. 『한국일보』, 18.

리영희—전표열 대담 (2002), “무위당 선생의 삶과 사상”, 『녹색평론』, 1—2월호(62).

<http://www.jangilsoon.co.kr/자료실>

Macpherson, M. (2006). *All Government Lie: The Life and Times of Revel Journalist I.F.Stone*. 이광일 역(2012). 『이지스톤 평전—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서울: 문학동네.

박병기 (1996). “휴머니즘으로서의 이데올로기 비판”. 『시대와 철학』, 7(2), 11~37.

손동우 (2012. 4. 27). 이렇게 답을 수가! 리영희의 ‘평행 이론’.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427155439](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427155439)

- 신흥범 (1999). 분단과 이데올로기 시대의 '잠수함의 토끼'. 리영희. 『동굴 속의 독백』. 서울: 나남. 521~529.
- 윤평중 (2006). 이성과 이상: 한국 현대사와 리영희. 『비평』, 겨울(13), 231~252.
- 조성환 (2007). 이상과괴자의 도그마와 이상. 『시대정신』, 봄호,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701&num=77>
- 최영목 (2012). 언론자유와 이상타파를 위한 불퇴전의 삶. 『창작과 비평』, 봄호(155), 390~402.
- 홍세화 (2010). 리영희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 홍세화 외. 『리영희 프리즘』. 서울: 사계절, 5~9.
- 홍윤기 (2011). 철학시민 그분, 리영희!—리영희 선생의 삶과 사상에서 '리영희 철학'을 찾는다. 『황해문화』,  
봄호(70), 327~354.

(투고일자: 2012. 6. 15, 수정일자: 2012. 7. 18, 게재확정일자: 2012. 7. 20)

ABSTRACT

## Study on ‘Idea of Journalism’ and ‘Practise’ of Lee Yeung-Hi

Young-Mook Choi\*

Lee Yeung-Hi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intellectual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Lee Yeung-Hi was evaluated as “the Teacher of thought” or “Culprit of consciousness” over the past half century in Korea. At the core of Lee Young-Hi’s philosophy and idea is humanism, freedom of expr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intellectuals. Lee Yeung-Hi lived lifelong journalists, journalism professors. But the study of Lee Yeung-Hi’s media activities and media practice, ‘Idea of Journalism’ are insufficient. This paper has deeply studied the ‘Idea of journalism’ and ‘Writing of social practise’ of professor Lee.

Keywords: Idea of Journalism, Freedom of Express, the Teacher of Thought

---

\*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Sungkonghoe University